‘왕인 수석전시관’ 내일 문연다

영암군, 16억 들여… 테마관광지 기대

왕인박사 유적지내에 왕인 수석전시관이 문을 연다.

영암군은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내에 수석전시관을 준공, 27일 오후 3시 개관식을 갖는다.

왕인 수석전시관은 전통한옥 구조로 영암에서 생산된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전통찻집과 정자도 갖추고 있다.

왕인 수석전시관은 소장하고 있는 수석 600여점 가운데 150여점을 정기적으로 교체, 전시할 계획이어서 인근 왕인박사 유적지와 연계된 테마관광지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성군 내년 예산 2,392억 확정

보성군의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78억2천만원 증액된 2천39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올 예산 2천136억 8천만원보다 2.7% 증액된 2천195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 3천만원으로 10.9% 늘어났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고창 자원봉사자 대회 성황리 마쳐

‘2006 고창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이강수 군수, 장세영 군의장을 비롯해 이돈우 고창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과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동리국악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고창군이장단협의회와 고창군여성자원활동센터, 대한어머니회고창지회 등 10개 단체가 우수자원봉사단체상을 수상했다.

또 부안면일심회 하태선 회장과 고창군의용소방대 김영창 회장,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최범석 지회장이 이웃돕기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곡성, ‘심청 상품권’ 활성화

가맹점 436곳으로 확대

곡성군이 ‘심청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지난 2001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심청 상품권은 관내 151개 가맹업소에서 사용돼 왔으나 대다수 구매 계층이 공무원으로 한정된데다 가맹점 숫자도 적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매액이 20억원에 그쳤다.

군은 우선 내년까지 가맹점을 436개로 늘리고 사용자도 관내 22개 유관기관 직원 1천600여명, 27개 기업체 근로자 2천500여명 등으로 확대, 상품권 판매액을 총 30억원으로 신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2008년까지는 관내 전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판매액은 6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심청 상품권은 5천원, 1만원, 2만원 등 3종으로 가맹점에서 현금과 똑같이 유통돼 지역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농산물 판촉에도 기여해 왔다. 구입시 1%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구매할 경우 잔금은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정종순)는 (사)농가주부모임 장흥군연합회와 함께 지난 21일 ‘사랑의 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및 친환경쌀 시식회’행사를 열었다. 농협 군지부와 주부모임 장흥군연합회는 이날 김장김치 500포기를 독거노인 등 100여곳에 전달했으며 친환경쌀 판촉활동도 벌였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광 장애인 복지 강화

내년 예산 280% 증액 22억 배정

영광군이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280% 늘어난 22억4천만원을 배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나섰다.

영광군은 병원도우미 등 장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3억원을 배정하고 장애인 콜 택시제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 61명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변화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 2006 군정 결산

장류메카 육성 지자체 첫 연구소 가동

순창군은 올 한해 정부로부터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한해 순창 군정을 되돌아 본다.

◇**우수기관 표창 봇물**=지난 2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제3회 지역산업정책대상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4월에는 순창장류사업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환경부 주관, 마을 상수도 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뽑혀 8억 원의 포상을 받았으며, 9월에는 장류산업특구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괄목할 만한 국가예산 확보**=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팔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325억 5천만 원의 국비투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시니어콤플렉스조성사업에 필요한 502억원을 확보했으며,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100억원도 확보했다.

장수연구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국비 105억원도 국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으며, 법관연수 및 사법연수원 건립사업비 국비 88억 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계속의 장류메카 육성**=지난 3월 국내 최초의 지자체 연구소인 장류연구소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사흘간 제1회 순창 장류축제〈사진〉를 개최, 장류산업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독일 칼슈타트 백화점에서 고추장 제조시연회와 고추장 요리 시식회를 개최, 4천만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창 장류의 유럽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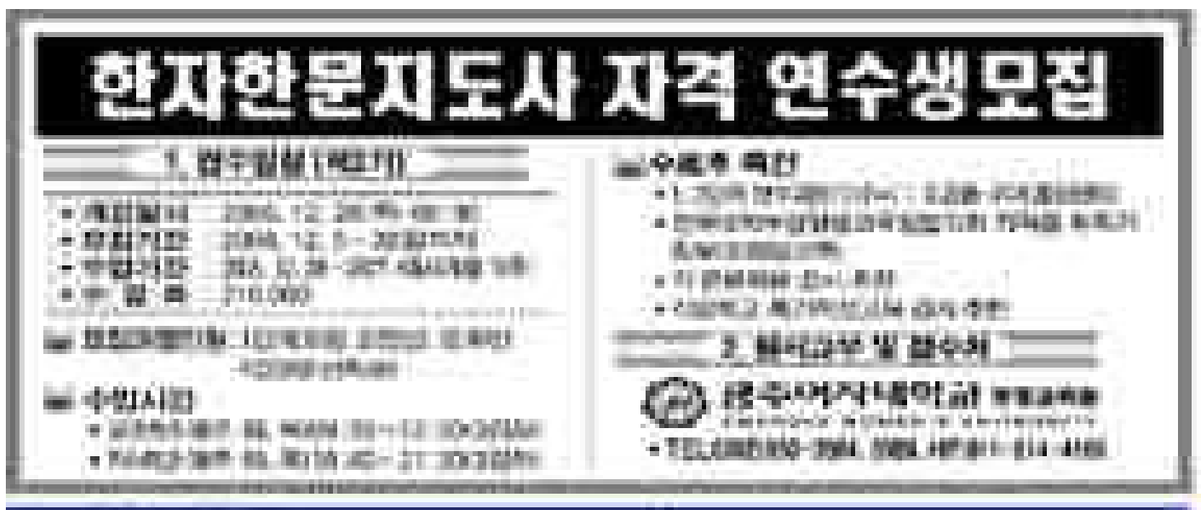
강 인 형 순창군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는 민선 4기를 이끌어갈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군민 여러분과 500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올 한해도 원만하게 군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정열을 바쳐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군수는 “내년에는 그동안 다져진 군정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순창, 전국 제 1의 순창 건설에 매진하겠다”면서 군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2년 연속 전북 최우수 청렴군 영예

순창군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도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9.07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올해 전국 공공기관의 대민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8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약 2개월간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창군이 전국 214개 자치단체 중 전국 30위, 전라북도 10개 측정기관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도 도내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